

「아버지에의 便紙」研究(Ⅱ)

孫 永 林

Über 「Brief an den Vater」

Son, Yeong-lim

〈目次〉	
1. 直接的인 動機	3-2. 세번째의 破局
2. 結婚問題, 그의 精神的 Dilemma	4. 아버지의 憤怒
2-1. 最初의 破局, F.B와의 關係	5. 結語
2-2. 두번째의 破局	略字表
3. Julie Wohryzek와의 關係	参考文献
3-1. 세번째의 約婚	

Zusammenfassung

Im November 1919, als seine dritte Verlobung, die Verlobung mit Julie Wohryzek, nach den beiden vorhergehenden (1914 und 1917) mit Felice Bauer, wegen des Widerstandes von seinem Vater Hermann mißerfolgt war, schrieb Kafka diessen langen ausführlichen *«Brief an den Vater»*.

In diesem Brief hatte er das unbefriedigende Verhältnis zwischen Vater und Sohn thematisiert und auch eine Besserung durch eine grundlegende Veränderung der Lebensumstände vorgeschlagen.

Er schrieb im Brief an Milena : *«Und verstehe beim Lesen alle advokatorischen Kniffe, es ist ein Advokatenbrief»*. Man darf hier die von Kafka erwähnte Kniffe nicht in Sinn einer Tatsachenverdrehung deuten; sie müssen vielmehr ein selbstquälerische Übersteigerung des Sachverhalts meinen.

Schließlich war es Kafkas Ziel, durch eine Analyse der Beziehung zwischen Hermann Kafka und seinen Kindern sein Verhältnis zum Vater zu entspannen.

Tatsächlich will der Dichter zwar durch diesen Brief eine Klärung der unglücklich entgegengesetzten Beziehung zum Vater herbeiführen, aber sein Versuch, wodurch er den Konflikt zwischen Vater und Sohn hat mildern und lösen wollen, wird unerreicht.

Von diesem Standpunkt aus versuche ich bei diesem Aufsatz hier die Situation, die sich in diesem *«Brief an den Vater»* spiegelt, zu analysieren.

1. 直接的인 動機

이 「아버지의 便紙/Brief an den Vater」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前半部는 그의 幼年期에서 青年期에 이르는 父子間의 葛藤이 주로 描寫된 것으로서, 이것이 예사 便紙가 아닌 龐大하고 尋常하지 않는 意識的인 動機가 作用되고 있는 것임은 이미 第一部에서 叙述했던 바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게 될 이 便紙의 後半部는 이 便紙가 쓰여지게 되는 가장 直接的인 關鍵인 Julie Wohryzek 양파의 結婚計劃과 이에 대한 아버지의 反對가 主題가 되고 있다. 게다가 여기엔 Julie Wohryzek 양파의 結婚失敗만이 아니고, Felice Bauer양파의 두번에 걸친 結婚失敗도 결코 看過할 수 없는 主題中에 속하게 된다.

그의 結婚試圖에 대한 아버지의 反對, 이에 대한 그의 지나치게 노골적인 態度는 前半部에서와 같은 高調된 非難과 激昂된 憤怒의 感情表現으로 要約될 수 있다. 특히 그가 아버지에게 직접 反旗를 들고 나선 것은 뭇보다도 <아버지의 結婚反對>에 의해 그가 救援을 받는다고 하는 劣等感이 그의 心底에 뿌리깊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간주해야 한다. 때문에 그는 自身을 일방적 으로 被害者의 입장으로 내 세우기 위하여 自己美化는 물론, 그가 목표로 하고企圖했던 結婚計劃이 마치 아버지의 邪惡한 反對에 의하여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를 惡人으로 몰아 세우는 것이다.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당신의 전 생애에는 당신에게 있어서 저의 결혼계획이 지닌 것과 같은 그런 의의는 결코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Ich wage zu sagen, daß Dir in Deinem ganzen Leben nichts geschehen ist, was für Dich eine solche Bedeutung gehabt hätte, wie für mich die Heiratsversuche.」(H. 152)

「무엇보다도 당신은 결혼의 실패/Mißlungen를 저의 그 밖의 다른 실패/Mißerfolge와 동열에 두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할 이유같은 것은 제겐 전무합니다. 허나 이것은 다른 실패에 대해 여태 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승인해 주시는 위에서입니다. 사실 그것은 동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일의 의미를 같은 것으로 경시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 서로 의논하게 되면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H. 152)

「그런데 우리를 두 사람에게 이미 오래 전부터 이 결정적인 시기에 와서 그것(신뢰)이 결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신과 제가 필요로 하는 바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크게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를 감동시킬 만한 일이 당신의 마음엔 손톱만큼 들지 않는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반대로 당신의 경우엔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도 저의 경우엔 죄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또 반대로 당신의 경우엔 아무론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지나갈 일이라도 저에게 있어서는 관뚜껑/Sargdeckel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H. 153)

이와 같은 말투는 父母에 대하여 子息에게서만 許容되는 傲慢이라 할 수 있다. 자식은 이러한 傲慢을 容赦받음으로써 부모에게 依支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 이유인즉, 만일 자식으로서의 부모

에 대한 依支가 멋벗한 것이 못된다고 한다면, 자식은 이 傲慢의 根據를 訓고 말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과 같이 子息 Franz는 아버지 Hermann과의 對決의 最大頂點이 되는 結婚問題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러했듯이 加一層 아버지에게 反抗하려는 心算으로 실은 歸順하고 있는 그와 같은 Dilemma에 스스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 逆說은 結婚을 하지 않은 理由를 說明하는 이 便紙의 마지막 부분에서 自明해지는데, 뒷보다 關心을 끄는 것은 責任을 회피하려는 詭辯을 늘어놓고 있음에도 論理의 必然的 歸結로서의 그 逆說이 透視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디서나 있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약간의 장해/Hindernis는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해를 제거하는 데에야 말로 인생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여기에 본질적인, 유감스럽게도 개개의 경우와는 관계가 없는 장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 정신적으로 결혼무능력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결혼을 결의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으로 분명 나타납니다.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머리가 많아오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귀신처럼 미쳐날뛰는 겁니다.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걱정/Sorge 같은 것은 아닙니다. 걱정이라면 원래 제가 우울증인데다 작은 일에도 얹메이는 성질이어서 무수한 걱정이 따라다니고 있읍니다만, 그런 것은 결코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체에 붙어있는 구더기처럼 그것들은 최종적인 뒷치닥거리는 합니다만, 결정적인 타격을 제게 준 것은 달리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불안과 허약, 자기경멸의 압박감이 어쩐지 모르게 늘려오는 그것입니다.」(H. 157)

「그것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당신에 대한 저의 관계 속에 있는 두 가지 분명한 대립이, 이 결혼시도에 있어서는 그 밖의 다른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읍니다. 결혼은 가장 강렬한 자기해방/Selbstbefreiung과 독립/Unabhängigkeit을 위한 보증일 따름입니다. 제가 가정을 갖게 되면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며, 그러니까 당신이 달성한 최상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당신과 동격이 되며, 옛부터의 그리하여 영원히 새로운 굴욕과 폭학/Schande und Tyrannei의 모두가 한갓 이야기꺼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황당무개한/märchenhaft 것에 불과하며, 바로 여기에 정체불명의 요소가 잠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와 같이 많은 것이 달성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선 마치 포박된 남자가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나(이것은 달성될테지요), 동시에 감옥을 자기 별장으로 고치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도망치면 고칠 수가 없으며, 고친다면 도망칠 수가 없읍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 대한 특별히 불행한 관계에 있으면서 독립하려 한다면, 전 가능한 한 당신과는 관계가 없는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사실 중대사며 더없이 명예로운 독립을 주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당신과 가장 밀접한 연계를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려 생각한다는 것은 그 때문에 미치광이와 같은 짓이 되며, 여하한 시도도 그것만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H. 157~158)

철두철미 그는 結婚失敗의 原因과 그 責任을 아버지에게 轉嫁하고 있다. 아버지가 적극 贊成했던

Felice와의 두 번에 걸친 結婚失敗도 결국은 그 責任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세번째의 Julie와의 結婚失敗도, 여기엔 다소의 아버지의 反對가 있긴 했으나, 결국은 그 責任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모든 責任이 그가 이 「便紙」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인지는 아니면 그 自身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인지는, 本稿에서는 이 「便紙」의 分析과 또 그의 「日記」를 통하여, 그리고 그 밖의 그의 다른 作品들과 그의 知己들의 입을 빌어 알아보기로 한다.

2. 結婚問題, 그의 精神的인 Dilemma

2-1. 最初의 破局, F. B 와의 關係

1912년 8월 13일, Kafka는 Brod의 兩親宅에서 Berlin을 來訪中인 F. B嬢을 알게 된다.¹⁾ 그는 한 눈에 그녀에게 반한다.

1912년 8월 20일자 「日記」에 따르면,

「나는 자리에 앉으면서 그녀를 처음으로 자세히 관찰했다. 의자에 앉았을 때에는 이미 나는 확고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Während ich mich setze, sah ich sie zum erstenmal genauer an, als ich saß, hatte ich schon ein unerschütterliches Urteil.」 (T. 208)

그녀는 프로샤 및 유태계 혼혈의, Kafka의 어머니를 닮은 듯한, 얼굴이 길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下女風의/wie ein Dienstmädchen의 家庭的인 아가씨로, <내가 원했다면 아마 몸이라도 바쳤을 것이다> (T. 208)고 하는 그의 말처럼, 그녀도 그에게 상당히 好感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부터 그들 사이에는 書信이 오가며 사랑이 움트기 시작한다.

그러나 同年 11월 9일자 便紙의 末尾에는 급기야 그녀와의 사랑을 後悔하는 글귀가 나타난다.

「저의 편지가 반드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전 어쩔 수 없읍니다… 원하신다면 물론 당신의 편지도 돌려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유형을 랑 아예 잊으버리시고 전처럼 밝고 차분하게 지내 주십시오./ Ich müßte Sie durch mein Schreiben unglücklich machen, und mir ist doch nicht zu helfen… Wenn Sie Ihre Briefe haben wollen, schicke ich sie natürlich zurück… Vergessen Sie rasch das Gespenst, das ich bin, und leben Sie fröhlich und ruhig wie früher.」²⁾ (Br. an Felice 83~84)

그후(1913년) 그는 創作³⁾에 没頭, 活氣를 보였으나 연속적인 徒夜로 건강이 악화되고, 게다가 結婚에 대한 煩悶에 시달려 심한 不眠症과 頭痛이 계속되며, 内面的인 葛藤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日記」에서 그 實例를 몇 가지 찾아보면,

1) Kafka는 그녀와의 破局 끝에 그녀가 남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브시를 고려하여 F. B라는 Felice Bauer의 略字를 쓰고 있다.

2) 이 便紙는 原註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未發送된 것으로 그의 遺稿(Brod 123 參照) 中에 남아 있는 것을 Brod가 公開한 것임.

3) 이 때 Betrachtungen 出版, Das Urteil, Der Heizer 發表됨.

1913. 5. 2

「육체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것, 쓴다는 것에의 내면적 요구/ die körperliche Unmöglichkeit, zu schreiben, und das innere Bedürfnis dansch.」(T. 222)

1913. 7. 1

「무심한 고독에의 소망/ Der Wunsch nach besinnungsloser Einsamkeit.」(T. 224)

1913. 7. 3

「결혼에 의한 생존의 확대와 향상, 설교의 문구, 하나 난 그걸 거의 예감하고 있다./ Die Erweiterung und Erhöhung der Existenz durch eine Heirat. Predigtspruch. Aber ich ahne es fast.」(T. 225)

1913. 7. 21

「나의 결혼 가부에 대한 총결산/ Zusammenstellung alles dessen, was für und gegen meine Heirat…」(T. 227)

1913. 7. 21, 같은 날

「난 불쌍한 놈이야! …무슨 놈의 고뇌람! …우린 미쳤나 봐? …무, 무, 무. 허약, 자기 부정, 대지를 훼손하는 지옥의 불꽃의 첨단/ Ich elender Mensch! … Was für Not! …Waren wir verrückt? …Nichts, nichts, nichts. Schwäche, Selbstvernichtung, durch den Boden gedrungene Spitze einer Höllenflamme.」(T. 229)

8월 13일에는 結婚取消를 決意하였는가 하면 翌日 도착한 그녀의 便紙에 참동되어 다시 結婚을 決意하고 있다.

1913. 8. 14

「난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한 그녀를 사랑한다. 하나 그 사랑은 불안과 자책에 묻혀 질식하고 있다… 함께 있는 행복에 대한 벌로서의 성교. 가능한 한 금욕적으로, 독신자 보다도 금욕적으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내게 있어서 부부생활을 이겨내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이다. 하지만 그녀는?/ Ich habe sie lieb, soweit ich dessen fähig bin, aber die Liebe liegt zum Ersticken begraben unter Angst und Selbstvorwürfen…Der Coitus als Bestrafung des Glückes des Beisammenseins. Möglichst asketisch leben, asketischer als ein Junggeselle, das ist die einzige Möglichkeit für mich, die Ehe zu ertragen. Aber sie?」(T. 230~231)

1913. 8. 15

「창에서 투신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Einzige Lösung im Sprung aus dem Fenster gesehn.」(T. 231)

그녀와의 結婚을 둘러싼 精神的 不安과 葛藤 속에서도 그는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結婚同意를 얻긴 했으나, 그 후 静養中이던 Santorium에서 Brod 앞으로 보면 便紙를 보면 여전히 이 不安은 가서지지 않으며, 더더욱 Dilemma에 빠지고 있다.⁴⁾

4) Brod 128 f 參照.

1913년 9월 28일자 Brod에의 편지

「나는 고독생활을 갈망하고 있다. 신혼여행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어떤 신혼여행의 부부의 모습이라도,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던 없던, 모두가 내게는 싫다. 그리하여 마음을 모질게 벅을려고 생각하면, 어떤 여인의 허리에 팔을 감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되는 것이다…필경 여기엔 현실에서와 꼭 마찬가지로 관념 속에서도 두 개의 불가능이 서로 대좌하고 있다. 난 그녀와 함께 살 수도 없으며 그녀 없이도 살 수가 없다. 이 단 한가지 요소에서 여태까지 적어도 부분적이나마 내게 유리하게 숨겨져 온 내 생존이 노출된다.」(Br. 122)

이러한 精神的인 葛藤속에서도 1913년 10월 22일자 「日記」에는 18세의 스위스 처녀 G. W와의 묘한 관계가 묘사되어 있다.

「너무 늦었다. 슬픔과 사랑의 감미로움. 보-트에서의 그녀의 미소. 그것은 더없는 즐거움이었다. 언제나 오직 죽음의 욕구만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지탱하는 것, 이것만이 사랑이다./ Zu spät. Die Süßigkeit der Trauer und Liebe. Von ihr angelächelt werden im Boot. Das war das Allerschönste. Immer nur das Verlangen, zu sterben und das Sich-noch-Halten, das allein ist Liebe.」(T. 238)

이 처녀는 그가 Riva에 체류하고 있던 數週사이에 사귀었던 처녀로, 그녀와의 은밀한 관계는 <자신에 관한 일은 절대 입밖에 내지 말아 달라는 그녀의 엄명>(T. 237)에 의해 베일에 싸이게 되었다.⁵⁾

決裂直前에 까지 다다른 Felice Bauer와의 관계는, 그가 Riva에서 돌아온 2주 후에 시작된 두 사람 사이의 文通 및 同年 11月의 그의 訪問과, 또 그의 친구며 文筆家인 Ernst Weiβ와 그녀의 친구인 Grete Bloch가 仲裁에 나섬으로써 和解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아니한다. 이 Grete Bloch는 나중에 그와 이상한 관계에 빠지게 되며, F. B와의 結婚破局의 主役을 감당하게 되는 중대한 人物이다.

1914년 2월 14일자, 「日記」에는 앞서 그가 Brod에게 보낸 1913년 9월 28일자 편지에서와 같은 유사한 表現이 되풀이 되고 있다.

「난 그녀없이 살 수 없다…그럼에도 난 그녀와 같이 살 수도 없다./ …ich bin nicht fähig, ohne sie zu leben…ich wäre aber…auch nicht fähig, mit ihr zu leben.」(T. 263)

1914. 2. 15

「자살욕/ Selbstmordlust」(T. 264)

1914. 3. 7

「나는 F.를 잊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Ich werde hier F. nicht vergessen, daher nicht heiraten.」(T. 266)

이러한 종잡을 수 없는 정신적 Dilemma 속에서 두 사람의 關係는 分裂直前의 危機에 다다른다. 더욱 重大한 事實은 비록 나중의 일이긴 하나 仲裁에 나섰던 그녀의 친구 Grete Bloch가 19

5) a. a. O. S. 129 參照.

15년 Kafka의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7세때 München에서 急死했다고 하는 Grete의 告白이다.⁶⁾ F.B도 女性的 敏感性으로 이 사실을 應感하고 激怒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Kafka의 態度 역시 疑心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訴訟/Der Prozeß』의 女教師(Montag嬪)가 Bürstner嬪의 방으로 이사해 오는 이야기도 이 女人(Grete)이 모델이었다는 Kafka와의 이상한 관계를 暗示하고 있다고 Brod는 말하고 있다.⁷⁾

그러나 個人的인 配慮로 公表되지 않았던 F.B와 Kafka와의 사이의 書信이 F.B의 死後 出版(1967年)되고, 게다가 Grete와의 書信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 그 중엔 特別한 愛情과 苦情이 엿보이기도 한다.⁸⁾ Grete는 Kafka가 子息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Kafka는 기필코, 특히 後年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Wagenbach 100 參照)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설사 그 아이가 진짜 Kafka의 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口實로, 그녀로서는 F.B에 대한 友情에서 밝히기 어려운 事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의 眞偽는 뭐라 斷定할 수 없으나 여하간 그녀는 陰影이 짙은 不可思議한 女人임에는 틀림없다.

그 후 1914년 5월에 Prag에 전너가 있던 F.B는 Kafka의 권유로 다시 Berlin으로 돌아오며, 6월 1일에 그 곳에 온 Kafka와 두 사람은 兩家 家族의 立會下에 正式으로 約婚을 하게 된다. 그러나, 破局에의 門은 그들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1914. 6. 6

『Berlin에서 돌아 왔다. 마치 범죄자처럼 뚝여 있었다. 진짜 사슬로 날 구석에다 메어두고, 또 경관을 내 앞에 세워둔 채, 날 이런 식으로 감시하게 했더라면 부아는 훨씬 덜 했을텐데, 이게 바로 나의 약혼이었다. 그리고 모두들 날 인생으로 내 보내려 애써왔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날 용서함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F.는 물론 모두들 중에서 가장 그것에 성공하지 못한 인간이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당연한 태도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장 괴로워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단순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 일이 그녀에게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T. 280)

이 約婚은 한달 반도 못되는 7월 12일에 급기야 取消되고 만다. 두 사람이 알게 된지 1年 10個月 만에 간신히 이루어졌던 約婚이, 비록 처음부터 위태로운 破局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손 치더라도,

6) 이에 대한 Wagenbach의 말을 인용해 보면,

『Grete Bloch가 1915년 Kafka의 아이를 낳은 것 (그 아이는 Kafka가 죽기 전 7세에 죽었으나)을 Kafka는 듣지 못했던 것이다. 1940년의 G.B의 친구에게 보낸 한통의 편지가 이 일의 유일한 증거가 되고 있다…G.B가 Kafka에게 아버지가 된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는 것도 중대사다…그것은 Felice에 대한 Bloch의 죄악감 뿐만 아니라, 아마도 Felice의 친구로서의 그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갖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Kafka가 종종 Felice에게 편지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임에 틀림없다.』 Wagenbach: Franz Kafka, Rowohlt's Monographien, Hg. von K. Kusenberg 1978. S.100.

이 사실을 Brod는 1948년 봄 그의 친구로부터 들어 소상히 알고 있다. (Brod 209 f 參照)

7) 『Der Prozeß』의 제4장에서 <Bürstner양의 친구인 불란서어 여교사가 그녀의 방으로 옮겨오며, 또 주인공 K.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다. K.는 모두가 결탁해서 자신을 Bürstner양으로부터 떼어 놓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오해였다고 하숙집 안주인은 국구 변명한다(P.58~59 參照)

Brod는 이 Bürstner양의 모델이 Kafka의 약혼자 F.B이고, F.B의 친구 Grete는 여교사의 모델이라 생각하고 있다. (Brod 130 f 參照)

8) 이 書簡集이 「F. Kafka: Briefe an Felice und andere Korrespondenz aus der Verlobungszeit, Hg. von Erich Heller u. Jürgen Bor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Fischer Bücherreihe 1697)」이다.

불과 한달 반이 못되어 破婚이 되는 經緯는 도시 納得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구차한 辨明같은 그의 内面的 葛藤이 일찍부터 그의 日記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著作活動을 고려하여, 그 著作活動이 結婚으로 威脅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⁹⁾

「Brief an den Vater」에서도 그는 結婚하여 家族을 扶養하며, 一家를 이끌어 나가는데 대한 不安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을 한다는 것, 일가를 구축한다는 것, 태어날 자식들을 모두 맡아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부양하며, 게다가 조금은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확신하는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의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입니다. 얼핏 보아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쉬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론 반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인즉 첫째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 많지 않은 사람들도 대개는 그것을 자신이 <행하고/tun>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단지 그들과 함께 <일어나고/geschieht> 있을 때입니다.」(H. 153)

여하간 Kafka는 이 최초의 結婚計劃이 失敗되리라는 것을豫感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가 Felice와 約婚하기 18日前인 1914년 5월 12일자로 Grete Bloch에게 보낸 便紙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속에서 그는 Grillparzer의 이야기를 引用, 報告하고 있다.

「약혼은 이미 오래전에 취소되었습니다. 저능한 친척들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Die Verlobung war schon längst aufgelöst, nur die schwachsinnigsten Verwandten dachten noch an irgendeine ferne Möglichkeit einer Heirat.」(Br. an F. 574)

「1914년 8월, Kafka는 <소송/Der Prozeß>을 쓰기 시작한다…<31세의 생일전야에> Josef K.는 살해된다. 31세의 생일 전야에 Kafka는 Felice와 약혼을 파기하기 위하여 Berlin으로 건너 갈 것을 결심한다. / In diesem Monat(August 1914) beginnt Kafka mit der Niederschrift des Prozeß …Am Vorabend seines einunddreißigsten Geburtstages wird Josef K. umgebracht, am Vorabend seines einunddreißigsten Geburtstages entschließt sich Kafka, nach Berlin zu fahren, um das Verlöbnis mit Felice zu lösen.」(Wagenbach 95)

결국 最初의 破局은 1914년 7월 12일, 그가 늘 묵온하던 Berlin의 Hotel <Askanischer Hof>에서 친구인 Ernst Weiß의 立會下에, Felice, Grete, 그리고 Felice의 아버지와 Felice의 누이 Erna, 이들 네 사람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2-2. 두번째의 破局

破婚 다음 날인 7월 13일, 그는 Ernst Weiß와 함께 2주간의 휴가를 내어 Berlin에서 Balt海沿岸으로, 다시 Lübeck近郊로, 또 Dänemark의 Marielyst 等, 유명한 해수욕장을 돌아다닌다. 그 후에도 그들 사이는 약간의 냉각기는 있었으나 그렇다고 文通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Kafka의 그녀에 대한 態度는 不變이었다. 그의 누이 Ottla와 Felice의 누이 Erna의 간곡한 권유도

9) 「Es war hauptsächlich die Rücksicht auf meine schriftstellerische Arbeit, die mich abhielt, denn ich glaubte diese Arbeit durch die Ehe gefährdet.」(T. 266).

있고 해서 그는 1915년 1월 23일과 24일에 걸쳐 Berlin-Prag鐵道의 Böhmen 國境驛 Bodenbach에서 그녀와 再會한다. 그의 1월 24일字「日記」에 의하면,

「F와 Bodenbach에서. 언젠가 우리가 앞으로 맷으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난 그녀에게도,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것을 감히 말하려 하진 않는다…그녀는 내 일에 관해선 거의 아무것도 묻지 않으며, 뭔가 분명한 센스같은 것도 없다…F.는 말했다. <여기선 우리 그저 얌전히 함께 있어요.> 나는 그녀가 말하고 있는 동안 내 청각의 기능이 몇이 있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 두시간 여 방안엔 우리 두 사람만이었다. 내 주위엔 권태와 삭막감 뿐이었다. 우리들은 여지껏 단 한번도 내가 자유로히 호흡할 수 있는 기분좋은 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 Zuckmantel이나 Riva에서와 같은 사랑스러운 여인과의 관계의 감미로움을, 난 편지 이외엔 F.에게서 느껴본 적이 없다. 여기에 있는 것은 끝없는 친탄과 예속, 동정과 절망, 그리고 자기 혐오 뿐이다.」(T. 334~335)

그러면서도 그는 이날 그녀에게 <律法의 門/Vor dem Gesetz>의 原稿를 들려주고 있다. 들어가선 안된다고 말하는 문지기도, 문이 열려있으니 들어가고 싶으면 禁止를 무시하고 들어가도 좋다고 말하지만, 法이 무서워 남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하여 죽음 직전에 그 문 안쪽에서 현란한 빛이 비쳐오는 것을 보고 그 문이 실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 남자는 알게 된다.」¹⁰⁾(P. 155 f. 參照)

簡略하면서도 不可思議한, 象徵的인 魅力에 찬 이 이야기를 그가 일부러 그녀에게 朗讀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推測을 자아내게 한다. 그것은 그녀가 열어놓고 있는 結婚에의 門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에 대한 自嘲와 憐憫, 게다가 그녀에 대한 罪責感과 憐憫같은 것이다.

「문지기 이야기를 낭독했을 때 보여준 커다란 주의와 선의의 관찰. 내겐 그 이야기의 의미가 비로소 분명하게 되었다./ Bei Türhütergeschichte größere Aufmerksamkeit und gute Beobachtung. Mir ging die Bedeutung der Geschichte erst auf.」(T. 335)

1915. 2. 22

「모든 점에 있어서, 그리고 완전한 무능력/ Unfähigkeit in jeder Hinsicht und vollständig.」(T. 338)

1915. 4. 27

「남들과 함께 생활하고, 남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것, 자신에의 완전한 침체, 자신을 생각하는 것, 무감각하고 사려없고 초조하게. 난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다. 한 번도 없다, 아무에게도 없다./ Unfähig, mit Menschen zu leben, zu reden. Vollständiges Versinken in mich, Denken an mich. Stumpf, gedankenlos, ängstlich. Ich habe nichts mitzuteilen, niemals, niemandem.」(T. 341)

막다른 풀목에 다다른 虛脫狀態 속에서의 그의 그 이후의 日記에는 별 두드러진 變貌는 찾아 볼 수 없다. 게다가 1916년에 들어와선 4월 19일까지 전혀 日記를 쓰지도 않고 있다. Felice에게는 1월

10) 이 <Vor dem Gesetz>의 이야기는 나중에 <Der Prozeß>의 제9장의 主題가 되는 것으로서, Kafka는 Felice에게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은연중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에 두통, 3월에 한 통의 편지를 내었을 뿐. 이럴듯 失意와 不安 속에 방황하고 있던 그에게 다소의 變化를 가져다 준 것은, 破婚以後에 보여준 그녀의 보다 思慮-깊고 理解心 많은 積極的인 態度, 即愛情의 表示에서였다. 이러한 그녀에 대해 그는 이를 번거롭고 귀찮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에 대한 罪責感에 몰린 宿命의 結合에의 自覺을 느끼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矛盾된 복잡한 想念이 이 時期의 그녀와의 관계에 기묘하게도 은근한 親密感을 갖게하고 있다.

1916년 7월 3일, 휴가차 그는 Böhmen의 Marienbad의 Hotel에서 Felice와 再會한다. 이 계기는 그녀의 熱意에 의한 結果에서였다. 이 곳에서의 그들의 10日間의 同棲生活, 再結合의 瑞光인양 했으나 그의 「日記」에서는,

1916. 7. 3

「F. 와 Marienbad에서의 초일. 마주 보이는 문, 어느 곳이나 열쇠 / Erster Tag in Marienbad mit F. Tür an Tür, von beiden Seiten Schlüssel.」 (T. 366)

1916. 7. 5

「공동생활의 번거로움. 이질감, 동정, 육욕, 비겁, 혀영에 의한 강제, 그리고 단지 깊은 바닥에 사랑이라 불리어 질 한줄기 얇은 시내가, 구하여도 미치기 어려운,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명멸할 뿐, 불쌍한 F. / Mühsal des Zusammenlebens. Erzwungen von Fremdheit, Mitleid, Wollust, Feigheit, Eitelkeit und nur im tiefsten Grunde vielleicht ein dünnes Bächlein, würdig, Liebe genannt zu werden, unzugänglich dem Suchen, aufblitzend einmal im Augenblick eines Augenblicks, Arme F.」 (T. 367)

1916. 7. 6

「불행한 밤. F. 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 그 누구와의 동거생활도 견딜 수 없다는 것. 유감스러운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독신이 아닌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눈을 감은 채 끝일줄 모르는 천천 반죽, 누군가의 노골적인 눈초리가 쏟아져 온다. / Unglückliche Nacht. Unmöglichkeit, mit F. zu leben. Unerträglichkeit des Zusammenlebens mit irgend jemandem. Nicht Bedauern dessen; Bedauern der Unmöglichkeit, nicht allein zu sein…Endloses Wälzen mit geschlossenen Augen, dargeboten irgendeinem offenen Blick.」 (T. 367)

여기엔 정신분열증적인 특징이 典型的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다른 사람과의 隔絕, 더우기 자기 자신과의 龜裂, 그리고 監視當하고 있다는 妄想마저 具備하고 있다. 그러나 여느 때처럼 이것을 記錄하고 있는 것은 바로 本人인 것이다. 그는 이 視線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은 것은 아닐까? 그의 「日記」에는 계속해서 수수께끼 같은 다음 몇몇 記述이 덧붙여져 있다.

「구약성서만이 알고 있다. 그것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 / Nur das Alte Testament sieht —nichts darüber noch sagen.」 (T. 367)

「안아 주세요, 절, 당신의 품에. 그것은 깊은 심연입니다. 절 안아 주세요. 그 깊은 심연 속으로, 지금 거절하신다면 후일에라도/ Nimm mich auf in deine Arme, das ist die Tiefe, nimm mich auf in die Tiefe, weigerst du dich jetzt, dann später.」 (T. 368)

「절 받아 주세요, 받아 주세요, 무지와 고통으로 얹히고 숙한 이 매듭을./ Nimm mich, nimm mich, Geflecht aus Narrheit und Schmerz.」(T. 368)

1916. 7. 8, Brod에게 보낸 편지에는,

「난 무슨 놈의 인간인가! 그녀와 날 괴롭혀 죽이는 건가! / Was für ein Mensch bin ich!
Quäle sie und mich zu Tode.」(Br. 138)

그런가 하면 同年 7月 10일에는 Felice의 어머니에게 Kafka와 Felice는 공동명의의 서신을 보내고 있다. 거기서 그는 앞으로 서로의 善意를 신뢰하며 체념하지 않고 和合할 것을 맹세하고 있으며, 그녀 역시 자기 어머니에게 그의 말을 믿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¹¹⁾

7月 中旬, 다시 Brod에게는 명백한 決意와 함께 구체적 계획까지 피력하고 있다.

「이제는 호전된거다. 나를 묶고 있던 곤도 조금은 느슨해졌다. 난 조금은 나아갈 길을 찾은 거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으로 구체의 손길을 끊임없이 뻗쳐주던 그녀가 또다시 구원해주었던 거다. 나는 그녀와 함께 지금까지는 내가 모르고 있었던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다. …나는 한 여인의 신뢰의 눈초리를 보고 난 못본 채 할 수가 없었다. 언제까지나 지키고 있으려고 한 모든 것이 (개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체가) 찢겨져, 그 틈사이로 또 인간생활 이상의 것에 충분한 불행이 닥아 오는 거다. 그러나 그 불행은 불러들여진 것이 아니고 주어져 있은 거다. 나에겐 그 불행에 저항할 권리는 없다…이제는 달라질 정도로 호전되었다. 우리들의 계약은 요컨대 이러하다——전쟁이 끝나면 곧 결혼한다. Berlin 근교에 두 세개짜리 방을 빈다. 집안 일은 각자 돌본다. F.는 지금까지 처럼 직장을 계속한다. 난 어떻게 할지 아직 탈할 수가 없다.」
(Br. 139~140)

그러나 이 決意는 한결같은 그녀의 가혹한 정성에 대한 그의 罪責感과 懈憊의 情에 의한 일시적인 現象에 불과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한 感情에의 屈服은 여태까지의 그의 生活原理의 否定이기 때문이다.

Marienbad 이후 그들 사이에는 매일같이 엽서가 오간다. 그것은 그의 권유에 의한 그녀의 <유태庶民館/Jüdisches Volksheim>¹²⁾ 근무때문에 오간 相談과 指導에 관한 것과 그녀의 사생활의 문제였다. 그들 사이의 이 <계약/Vortrag>이,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언제나 통용되지 않는 계약

11) 「Felice und ich haben uns,...gefunden, daß wir vor Jahren die Sache verkehrt angefaßt haben. Nun wird eben das Gute nicht zum erstenmal...fertig...Und wollen es auch festhalten, wozu ich Deiner mütterlichen Zustimmung gewiß zu sein glaube noch aus jenen Tagen her...das weiß ich wohl, aber unter diesen wenigen ist das Verhältnis zwischen Felice und mir und dessen Sicherung für die Zukunft...Dein Franz.」

「Liebe Mutter, ich hoffe, Du verstehst die vorstehenden Worten von Franz so, wie sie gemeint sind. Du hast ja nun Gelegenheit, ihm Deine Liebe von neuem zu schicken...Deine Felice.」
(Br. an F. 663~664).

12) Im September 1916 meldete sich Felice auf Auffregung Kafkas zur freiwilligen Mitarbeit im Jüdischen Volksheim Berlin, einem Zentrum jüdischer Volksarbeit, das im Mai desselben Jahres in einem vorwiegend von ostjüdischen Kriegsflüchtlingen und Einwanderern bewohnten Viertel Berlins in der Nähe des Alexanderplatzes gegründet worden war...Aufgabe des Heims war die nationale und religiöse Erzieh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aus jenen zum Teil in äußerst dürftigen Verhältnissen lebenden Familien.(Br. an F. 41)

이, 그에게는 1914년 봄에 체결되었던 계약¹³⁾과는 반대로 하나의 새로운 確信을 주고 있는 것 같다. Marienbad 以來로 그는 새로운 住居를 Alchymistengasse의 Schönborn-Palias에서 두 개짜리 방을 빌리고 있다(1917년 3월). Kafka의 새로운 確信은 戰爭이 끝나기 전 Felice와 約婚하려는 그의 決意의 表明이었다. 7月初 Prag로 전너 온 Felice와 두 번째의 約婚이 맺어진다. 7月中旬頃에 Felice 와 함께 Hungary에 있는 Felice의 누이를 訪問하기도 한다. 그러나 Hungary에서 돌아온지 얼마 안 되는 1917년 8월초, 갑작스런 喀血로 이 結婚計劃은 中斷되고 만다.¹⁴⁾ 喀血은 8月 9日과 10일 사이의 밤이었다. 이 사실을 그가 Felice에게 알린 것은 한달이 지난 9月 9일이며, Brod의 日記에 의하면 8月 24日字의 기록이 된다.

「Kafka의 병에 대한 대책. 그는 그것을 심리적인 것이라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결혼에서의 구제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결정적인 패배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는 잘 잔다. 해방된 걸까? —고통받은 영혼이여! / Maßnahmen wegen Kafkas Krankheit. Er stellt sie als psychisch dar, gleichsam Rettung vor der Heirat. Er nennt sie: seine endgültige Niederlage! Doch schläft er seither gut. Befreit?—Gequälte Seele!」 (Brod 144)

9月 9日字 Felice에의 便紙는 지극히 冷情하다. 마치 남의 일 보듯한 語調다.

「병이 돌발한 것이 절 놀라게 하진 않았습니다. 피를 토한 것도 그랬습니다. 전 이미 수년전부터 불면과 두통으로 큰 병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은 피가 이제사 솟아 올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녕 절 놀라게 했습니다. 어쨌든 저의 가족들을 두루 살펴 보아도 그런 기미를 가진 사람은 여태 한 사람도 없는데, 결혼 셋이 된 지금 갑자기 그것이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Br. an F. 753)

9月 12日字, Brod는 자신의 日記에 이렇게 쓰고 있다.

「그는 F.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병때문에 / Er ist der Ansicht, daß er nun F. nicht heiraten kann, der Krankheit wegen.」 (Brod 145)

9月 21日字, Kafka의 日記

「F.가 여기에 와 있다. 날 만나기 위해 30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말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내 상상으로는 그녀는 뒷보다 나 때문에 극도의 불행을 짊어지고 있다. 난 어찌해야 좋을지 할 바도 모르고, 완전히 무감각이며, 마찬가지로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얼마 안 되는 자신의 안일을 방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거기다 유일한 양보로서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다. 사소한 점에서 그녀는 잘못되고 있다. 그것이 명목상의 것이든 현실의 것이든 권리 혹은 용호하고 있는 점에 있어선 그녀는 잘 못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죄가 없음에도 가혹한 고문형을 선고받은 수인이다. 내가 부당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녀는 고문형에 절여있는 거다. 게다가 난 고문기구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 (T. 388)

13) 1914년 6월 1일, Felice와의 첫번째 약혼을 말함.

14) 이 結婚에 적극 찬성되었던 아버지에게 그는 <이 병이 파혼의 이유> (Brief an Ottla, 1917. 12. 28 Wagenbach 10 참조)라고 쓰고 있으며, Brod에게는 喀血이 <결혼에서의 구제> (Br. 166 참조)라고 억지 별명을 하고 있으나, 日記에서는 결정적인 패배를 자인하고 있다. 한편 Wagenbach는 이를 <Kafka 가 F.B와의 결혼에서 해방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Wagenbach 108 참조)고 쓰고 있다.

罪意識의 作用만을 미루어 보더라도 그가 結婚할 意思를 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반대로 그 때문에 結婚에의 意思가 強烈해 진다는 것도 그의 心理的 通例였다. 물론 그것은 結婚에 대한 未練같은 것은 아니다. 結婚問題를 契機로 形而上學的 思索를 展開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그의 精神世界의 廣大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9月 25일字, 그의 「日記」에는 그들 사이의 終末을 고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 싸워온 채찍은 5년 사이에 완전히 매듭을 지어 버리고 말았다./ Die Peitschen, mit denen wir einander hauen, haben gut Knoten angesetzt in den fünf Jahren.」(T. 389)
그런데 10月 8日字, 日記를 보면 事後處理가 그리 간단히 끝나진 않은 것 같다.

「그 사이 F.로부터의 비탄의 편지, G. B는 편지로 협박하고 있다./ Inzwischen: Klage-Brief F.s, G. B droht mit einem Brief.」(T. 390)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Brod가 말하는 이 終幕은 이 5년 사이가 Kafka에 있어서 어여하였던가를 새삼 想起하게 하는 悲痛한 情景이다.

「12월 말 Franz는 Prag에 와, 여기서 F.와 만났다. 그녀는 Berlin에 있는 대 회사의 취체역이 되어 있어 (신중, 숙련, 배짱은 그녀의 뛰어난 특성이다), 최후의 담판을 위해선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비극은 그 종박을 맞이했다. 12월 25일 밤, Franz와 F.는 우리 부부가 있는 곳으로 손님이 되어 찾아 왔다. <둘 다 불행,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Beide unglücklich, reden nichts.〉」(Brod 147)

다음 날(26일), Brod는 이렇게 記述하고 있다.

「Kafka가 아침 7시 반에 왔다. 오전 중에 함께 있어 달라고 한다. Cafè Paris. 그러나 그는 나의 조언을 원하지 않는다. 그의 결심은 놀랄만큼 굳어 있다. 시간만 보낼 뿐. 그는 어제 F.에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했던 거다. 우린 온갖 대화를 가졌으나 단지 그 일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략) 다음 날 오전, Franz는 내 사무실에 들렸다. 좀 쉬게 해다오 하고 그는 말했다. F.를 역에까지 전송하고 오는 길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굳어져 피로운 표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울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가 우는 것을 본 단 한번의 기회였다. 난 이 광경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경험한 가장 처절한 장면이었다. (중략) 그는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니냐?〉 눈물은 그의 두 뺨을 흘려내리고 있었다. 이렇게도 침착성을 잃고 이성을 잃은 모습은 본 것은 이 때 뿐이었다.」¹⁵⁾ (Brod 147~148)

15) Felice의 그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면 이러하다.

Im März 1919, ein und ein viertel Jahr nach der endgütigen Trennung von Kafka, heiratete Felice einen wohlhabenden Berliner Geschäftsmann. Dieser Ehe entstammten zwei Kinder, ein Sohn und eine Tochter. Von der Geburt der Kinder hat Kafka noch erfahren, wie aus Briefen an Milena und Max Brod hervorgeht. Im Jahre 1931 übersiedelte Felice mit ihrer Familie in die Schweiz und 1936 in die Vereinigten Staaten. Dort starb sie am 15. Oktober 1960. (Br. an. F. 42)

3. Julie Wohryzek와의 關係

3-1. 세번째의 約婚

1918년 여름과 겨울 Kafka는 Prag에 체류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休養旅行을 하고 있다. 11월에 접어 들자 다시 휴가를 엔어 Elbe 河畔의 Liboch 近郊의 小都 Schlesen으로 전너가, 다음 해인 1919년 봄까지 그곳의 Pension Südl에서 지낸다. 이 下宿에서 그는 체코系 유태처녀 Julie Wohryzek양을 알게 된다. Julie라는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도 친근감을 주는 이름인 것이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리고 後妻로 들어온 외할머니가, 또 그의 姑母가, 똑같은 Julie라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건 묘한 우연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 처녀에게 關心을 갖게 되는 첫번째의 因縁이 되고 있다.

이 처녀는 Prag-Weinberge 유태교도 집단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구두점을 꾸려가고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나중엔 이 아버지의 천한 신분이 그들의 결혼 장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Kafka는 이번에도 <杜門不出/sich abschließen>하려는 자신의 意圖를 破棄하고 그녀에게 마음을 뺏기고 만다. Felice와의 破婚後 1年半, Julie Wohryzek양을 알게 된지半年만에 급기야 그는 세번째의 約婚을 하고 있다.

이 Julie에 대한 그의 印象이 Brod에게 보낸 1919년 2월 6일자 便紙에 나타나 있다.

「유태적이라고 말한다면 젊은 처녀가 한 사람있다, 조금은 병적이라 생각되긴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게다가 놀랄만한 외모지. 유태녀도 아니며 비유태녀도 아니며, 독일녀도 아니며 비독일녀도 아니며, 영화, 오페레타, 희극 및 분파 베일을 열애하며, 더없이 비속한 <Idisch어의 표현/Jargonausdruck>을 무한히 거칠없이 구사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지극히 무학이고 성질은 우수에 참겨 있다기보다는 쾌활한—그저 그런 정도다, 그녀는. 그녀가 속하는 종족을 정확하게 규정 하려한다면 그녀는 여출납계원/Komptoristin 쪽에 속한다고 말할 수 밖엔. 동시에 그녀는 내심 용감하고 성실하며 사욕이 없다—이것은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대단한 특성이다. 물론 신체적으로 아름다운 데가 없다곤 할 수 없으나, 예컨대 내 램프의 불빛에 날라들어 부딪히는 모기와 같은 부질없는 존재이다. 그런 점 이런 점에서 그녀는 자네가 아마도 혐오의 정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저 Bloch양을 닮았다네.」 (Br. 252)

이 便紙의 文面에서 Julie의 모습은 어렵잖하게 나마 떠 오르고 있다. 가장 흥미진진하게 생각되는 것은 Felice와 Grete의 特徵의인 面이 二重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女出納係的>이라는 용어주도성은 예누리없는 業務代理人 Felice의 特性이며, 이 Felice에게 비교적 결여되어 있는 <内心勇敢하고 誠實하며 私欲이 없는> 面, 더욱기 <램프의 불빛에 날라들어 부딪히는 모기와 같은 부질없는 存在>인 面은 激情으로 몸과 마음을 戲弄當하고 스스로 破滅해 버린 Grete의 特性이라 할 수 있다.

이 約婚에 대해 당시 Kafka가 얼마만큼 慎重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은 그 뒤 Milena에게 보낸 便紙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의미에 있어서 사려분별력을 갖춘 결혼이 되었을 것이다./ Es wäre eine Verstandesheirat im besten Sinn geworden.」 (M. 32)

그의 이렇듯 빠른 決意가 그것을 證明하는 것이다. 그가 Julie에게 보낸 便紙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一般에겐 이 約婚事實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거의 最近의 일로서 Julie Wohryzek의 누이에게 보낸 한통의 便紙가 발견됨으로써, 이 約婚과 그 破婚의 前歷과 變遷이 어찌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J. 와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 알고 있으시겠지요. 알게 된 처음은 실로 묘했습니다. 미신적인 사람들에게 길조로 여겨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고 있었던 수일간은 식사 때나 산보를 할 때나, 서로 마주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여하간 웃고 있다는 것은 유쾌하지 못했으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것은 괴롭고 부끄러운 느낌도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서로 멀어지게 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막아버리고, 만나는 것도 뜨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 지니고 있던 의도에도 들어 맞는 것처럼 제겐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전 (병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비교적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온한 한 해를 지내온 것입니다만, 역시 상처투성이 인간에 불과할 뿐, 어디서든 발목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한 참고 견디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전 그 최초의 접촉으로 불쾌하기 이를 데 없는 최초의 고통속으로 되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우기 옛 체험이 생생하게 되살아 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그 체험은 과거의 일로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라는 공식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낡은 상처의 운하/Wundkanal로, 그 운하에서는 새로운 고통이 제작기 다함께 부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일과 마찬가지로 무서운 것입니다. 저항력이 훨씬 약해져 있어 더욱 무서운 겁니다…당시의 저에게 이미 최초의 몇 일 동안은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어느 날 밤, 그것은 일년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최초의 잠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협박이라는 걸 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J.는 아마도 사태를 가벼히 받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처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바깥으로부터 마음을 교란시키기가 너무도 어려운 온화함과 냉정함이 내면에 불가사의하게 혼효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이 일에 매듭을 지었던 겁니다. 우리는 전적이라 해도 좋을 만큼 회복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전 가능한 한 매일 의사에게 가슴 진찰을 받기 위해 간 일입니다만, 끝내 우리는 매듭을 짓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결혼과 자식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열망하는 최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은 점, 그러나 저에게 결혼이 불가능했다는 점(그 밖의 모든 것이 충분히 이해되는 결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남았던 겁니다. 그것은 두 번에 걸친 저의 파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확인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혼자 Schlesen에 체류하면 3주 동안, 실제로 우린 편지를 주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제가 Prag로 돌아 왔을 때, 우리는 쫓기기라도 하듯 서로의 곳으로

날라 왔던 겁니다. 그런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 중 그 어느 쪽도 말입니다. 물론 표면상 전체를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제게 달려 있었습니다…

여하간 전 이미 나쁜 경험을(오로지 저만의 일입니다) 해 왔기 때문에, 어째서 그려할 권리가 제게 또 생겨났을까요? 여기선 모든 일이 전보다 훨씬 좋은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도 좋은 형편이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그 일을 하나하나 증명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는 다음 사실만은 말씀해 두고 싶습니다. 우리는 J. 자신도 모르고 있을만큼 서로 접근해 있었다는 점(지금도 접근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예비적인 것은 대단히 빨리 그리고 간단히 매듭지워지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저의 아버지에 대한 불행한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아버지의 저항은 제게 있어서는 제가 할려고 하고 있는 일의 정당성을 가일충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연애결혼/Liebesheirat이지만 보다 엄밀히 말하면 고도의 의미에 있어서의 이성결혼/Vernunft-heirat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져 버리지도 않고, 말하자면 숨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전개를 관찰하고 있은 온갖 저항이 저의 내부의 어디에 잠재해 있었을까요? 사실상 전 그 저항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으로 밖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항이 저의 개인적인 능력을 훨씬 능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저항이 하고자 한다면 전 완전히 그 저항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가버리는 겁니다. 우선 물질적인 걱정은 없어집니다…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그런 일을 제게 말해서 둘질적인 걱정을—그 걱정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어서—악마와 같은 간계로 다른 걱정으로 혼합시켜 버리는 것입니다.—너는 너의 내면적 영속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결코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 너는 자신의 가정을 세우려 한다…무슨 힘으로 넌 가정을 꾸려가려 하는가? 게다가 넌 팔자에도 없는 많은 차식을 바라고 있다. 지금의 너보다 훨씬 나아지려고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넌 결혼하여 산아제한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넌 토지가 차식을 걸려주는 농부는 아니다. 게다가 최저의 곳까지 내려가더라도 너는 상인은 아니다. 내적 소질에서 생각해서(아마도 유럽의 직업인의 쓰레기 계급의 하나인) 관리다. 동시에 신경질적이고, 위험하기 짹이 없는 문학으로 타락하고, 폐를 앓는 데다, 사무실의 사소한 일에도 지쳐 게으름을 피우는 관리다. 이런 조건하에 (강제로 결혼 당한다고 하면 그대로 인정을 받긴 하겠으나) 넌 결혼할 걱정인가? 게다가 그런 기분으로 밤에는 졸린다, 낮에는 두통으로 반 열간이 처럼 뒤늦게 체정신이 되어 빈둥빈둥 뛰어 돌아다니는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이러한 요구를 감히 해보려는 방자함이 아직도 남았느냐? 신부에게 바칠 이런 선물로 넌 신뢰하여 혼신하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사무욕의 처녀를 불행하게 하려느냐?

이런 것을 송두리째 분명하게 처음부터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일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만큼 몰아 세우다니, 그런 이유따위 저에게 있을 리 없다고 당신은 의의를 제기하실 테지요. 거기에 대해선 저도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첫째로, 이러한 일들은, 설령 유사한 경험이 있다손 치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금 새삼스레 놀랄만큼 새로운 것으로 체험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둘째로, 제겐 달리 어떻게 할 선택의 여지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하에 나타난 평온하고 균형잡힌 행복을, 결혼을 추구하려는 저의 본성으로 미루어 근거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며, 또 결혼하면 그 행복에 최소한 나중에 근거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 믿고, 또 극도의 아낌없는 노력에 의해 결혼에 끌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면적 강박상태였습니다. 셋째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상태가 아주 호전되어, 자신의 내부의 저항력을 오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려는 바램이 허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크다란 의념도 우선은 이 확고한 결심을 피하여 몸을 숨기고, 불면이라는 것은 고통으로 그 결심을 뒤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의념은 오래 계속되어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고 감히 행동으로 나오려 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전 자신의 희망을 걸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외적 사실과 저의 내면적 병약과의 경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국면이 있었읍니다. 처음엔 의사의 진단이 늦어졌던 일, 교수가 휴가중이어서—이것은 형편이 나빴던 겁니다. 그로부터 그렇게 오래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습니다—이건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절 혼돈시켜 여러 가지 생각을 진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렇게 나쁘지 않는, 곧 살 수 있는 살 곳이 마련될 가망이 생겼던 겁니다. 그것은 이미 계산했던 밥니다. 이젠 절박한 한 주일, 저희들은 결혼했습니다라고 하는 공고도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요일에는 살 곳이 잘 못되어 일요일에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이 일이 처음부터 불행했다, 다분히 그대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더욱더 지독한 와해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쌍의 부부를 매장하게 되었을 것이다고 하는 투로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결혼에 끌인하려는 저의 희망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 자신은 가련한 인간에 불과하며, 지난 때문에 여행을 바랠지언정 결코 거짓말쟁이는 아니었다는 점 말입니다.

그 당시 이것이 하나의 전기였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제게 주어진 휴가기간도 끝나버리고, 여태까지 멀리서 경고를 발하고 있던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주야로 내 짓전을 떠리는 겁니다. J.는 외적 징조로 그것이 어떠했는가를 거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으며, 그것을 그녀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Wagenbach 116~119)

이 便紙의 内容은 크게 두 部分으로 要約된다. 처음 그녀와 알게되어 約婚하기까지, 그리고 結婚計劃을 세워 그것이 挫折되기까지의 두 部分이다. 그런데 이 便紙가 쓰여진 1919年 11月 24日과 같은 날자의 한 斷片이 「書簡集」¹⁶⁾에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가 Julie의 兩親앞으로 쓴 便紙의 한 部分으로 여겨진다.

「…설명하는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제게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그리고 모욕적인 것이어도 좋습니다. 여하간 그것을 증거로 뒷받침하고 주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아니, 설명이야 어쨌던 제가 J.에게, <더 없이 무고하고 더없이 선량한 아가씨/ der Unschuldigsten und Günstigsten에게 심한 고통을 받게 했다는 점에 있어선, 그나마 이와 비교해서 단지 사교적인 참

16) F. Kafka: Briefe 1902~1924, Hg. von Max Brod,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5를 차리킴.

회 같은 것은 실로 창피스러울 정도의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 있어선, 이 설명은 영구히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두 가지 전제가 제가 믿고 있는 것처럼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저의 약점을 극복하고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자리에 불려 주십시오. 2월에 전 약간의 희망을 안고 약 3개월 예정으로 München으로 갑니다. 전부터 Prag를 떠나고 싶어 하던 J.도 아마 München으로 오게 되겠지요. 저희들은 세상의 다른 한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간의 일들이 다분히 조금은 달라질 것이며 수다한 위약/Schwäche과 불안이 적어도 그 형태나 향방이 달라질 테지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쓸데없이 서툴고 부질없는 것들만 쓴 것 같읍니다. 아무쪼록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용서해 주십사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인내하며 사려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무엇이든 놓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이외의 일은 무엇이든 아시지 않기 위해서.

경구

Dr. F. Kafka]

(Br. 255~256)

3-2. 세번째의 破局

Julie Wohryzek양과의 約婚은 1919年 6月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알게 된지 6個月정도에 불과하다. Felice의 경우가 2年餘에 가까웠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 빠른 斷案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그와 정면으로 論爭한 Felice의 응고집 같은 성격을 Julie가 갖지 못하였다는 점과, 또 그가 앞서 Brod에게 쓰고 있듯이 그녀의 <誠實하고 私慾이 없는/ehrlich selbstvergessend¹⁷⁾ 性格때문인 것은 확실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번의 경험에서 얻은 달갑지 못한 蹤躇에 決斷을 내린 까닭이라 볼 수 있다. 「아버지에의 便紙」에도 이에 대한 言及이 있다.

「제가 두번째의 결혼을 계획함에 있어 최초에 시도한 경험을 경시한 나머지, 그 때문에 경솔한 처사는 아니었느냐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하진 않았습니다. 사정이 완전히 달랐으며, 게다가 천번의 온갖 경험이 두번째의 경우엔 전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었으니다만, 저에게 희망적인 것이었읍니다./ Es ist auch nicht so, daß ich beim zweiten Heiratsversuch die Erfahrungen des ersten Versuches mißachtet hätte, also leichtsinnig gewesen wäre. Die Fälle waren eben ganz verschieden, gerade die früheren Erfahrungen konnten wir im zweiten Fall, der überhaupt viel aussichtsreicher war, Hoffnung geben.」 (H. 157)

1919년 6월 30일의 日記엔 約婚直後의 것이긴 하나 그가 그녀에게서 발견한 보람에 대한 감사와 함께, 급기야는 Felice의 경우처럼 後悔와 逃走에의 길은 憂慮를 나타내고 있다.

「Rieger 공원에 갔다. Jasmin 숲곁을 J.와 산보. 허위와 진실, 허위란 한숨 속에 있으며, 진실이란 결합 속에, 신뢰속에, 보호속에 있음이로다. 불안정한 마음/ Im Riegerpark gewesen. An den Jasminbüschchen mit J. auf- und abgegangen. Lügenhaft und wahr, lügenhaft im Seufzen, wahr in der Gebundheit, im Vertrauen, im Geborgensein, Unruhiges Herz.」 (T. 394)

17) Br. 252 參照.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不安이 도리어 促進劑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전처럼 逃走하여 破婚을 피하려는 대신에 結婚으로 도망쳐 들어가려 한다. 그는 자신의 内面에 잠재해 있는 結婚을 阻止하려는 抵抗에 대해 그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解明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별 説得力없는 理由만을 내세우고 있다. 다음 해 4月頃에 Milena 앞으로 보낸 便紙의 한 구절을 보면,

「되풀이 합니다만, 오로지 제쪽에서 결혼하려고 생각했으며, 우격다짐 결혼을 주장한 것이지, 그녀쪽은 단지 어쩔줄 모르고 그저 우물쭈물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와선 자연히 이 생각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ich wiederhole : ausschließlich ich hatte den Heiratseinfall gehabt, ausschließlich ich hatte zur Heirat getrieben, sie hatte sich nur erschrocken und widerwillig gefügt, dann aber hatte sie natürlich in den Gedanken eingelebt.)*」(M. 23)

이처럼 그의 無理한 努力이 드러나게 되면, 이번의 試圖가 저번의 試圖와 現象的으로 對照의 일 수 있을 만큼, 前者は 後者를 뒤집어 놓은 것에 불과하며 同一한 原理가 作用되고 있음이 透視되는 것이다. 맹목적인 結婚強行이 結婚恐怖를 더욱 激化하여 이 進退兩難의 Dilemma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自招한 喀血과 同一한 絶對的 權能을 지닌 神의 到來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 役割을 말아 그를 窮地에서 救出해 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버지 Hermann이었던 것이다.

子息은 분명히 세 가지 理由를 들어 그 둘째번 것을 아버지에의 抵抗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抵抗은 <그다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 nicht allzulange dauernd>, 그抵抗은 <나쁘진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을 현혹시켜 온갖 생각을 친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기 때문에 / das war gut auch deshalb, weil es zerstreute und die Gedanken von den eigentlichen Gefahren ablockte>¹⁸⁾라는 등, 이 理由를 極力 無力化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근거없는 교묘한 발뺌으로 생각되며, 그의 内면적 焦躁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이 反對는 다른 두 가지 理由, 다시 말해서 醫師의 診斷과 住居의 不利한 結果라는 理由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比重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健康狀態가 結婚에 支障이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몰랐던 事實이 아니며, 住居問題도 달리 구할 수 없는 事情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理由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 便紙의 앞 부분에서 <아버지의抵抗도 아버지에 대한 나의 不幸한 關係때문에 되려 내가 할려고 하고 있는 것에 不當性을 가이총 강력히 증명하는 것/ *der Widerstand meines Vaters, bei dem unglücklichen Verhältnis, in dem ich zu ihm stehe, mir ein weiterer starker Beweis für die Richtigkeit dessen war, was ich tun wollte*>¹⁹⁾이라고 誇示하고 있다. 마치 아버지의 反對를 환영하고 있는 듯한 態度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비장한 決意였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격렬하게 그가 아버지의抵抗에 怯을 먹고 있었음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만약 아버지의 反對에 거역하려는 目的意識이 그녀에게 접근하려는 權利를 그에게 부여했다고 한다면, 더욱이나 이것은 結婚試圖의 挫折理由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바로 여기에 挫折의 原因이 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에 대한抵抗을 위하여 그녀에게 접근하고, 또

18) Wagenbach 119 參照.

19) ebd. 117.

아버지의 反對를 誘導하기 위하여 結婚計劃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아버지에 대한 非難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 結婚에 대한 子息의 최종적인 意向을 전해들은 아버지는 激怒하며, 때문에 두 사람 사이는 極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한 수일 사이의 어느 날 아버지는 子息을 麾倒하고 淨辱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忠告에 그치고 있을 따름이다.

「〈아마 그녀는 뭔가 뛰어나게 좋은 고급 블라우스라도 입고 있었을 테지. Prag의 유대녀들이 익히 쓰는 수법이지. 거기서 넌 물론 그녀와 결혼할 결심을 했다는 거지.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일주일내로, 내일에, 오늘에. 난 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 너도 어엿한 사내 대장부가 아니냐. 도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마음에 들기만 하면 어떤 여자든 곧 결혼하겠다는 것밖엔 아무것도 아니잖니. 도대체 다른 방법은 없단 말인가? 만약 그게 두렵다면 내가 직접 함께 가줄 수도 있어.〉 당신은 훨씬 상세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읍니다만 전 일일이 다 기억해 낼 수가 없읍니다. 다분히 제가 조금은 눈앞이 흐려져 있었을 테지요. 오히려 어머니 쪽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어머님 전적으로 당신에게 동의하면서도, 그런데도 언제나 테이블에서 뒷인가 집어들고 방을 나가시는 것이었읍니다.

그 이상 호되게 저를 말로 보옥하신 적은 아마 없으셨을 테지요. 또 그 이상 분명하게 제게 경멸을 보이신 적도 없으셨으니까요.」(H. 155~156)

그의 말처럼 아버지의 淌辱이 그의 입장은 正當化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그와 같은 窮地로 몰아넣은 물었군은 다름아닌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되풀이하여 Felice나 Grete에게 썼던 手法인 것이다. 필경 교활한 奸計로 相對가 攻擊해 오면 그 역을 쳐서 상대를 품짝 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하간 그가 아버지의 淌辱을 강조하여 아버지를 非難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反對탓으로 결국 結婚하지 않고 배겨내었다고 하는 明若觀火한 事實때문인 것이다. 마음 한 구석에는 依然히 結婚에의 지워버릴 수 없는 憧憬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行爲에 대한 非難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4. 아버지의 憤怒

그런데 아버지가 이 結婚에 적극 反對한 理由로서는, 첫째로, 이 結緣이 Hermann Kafka의 눈에는 자신의 이름에 붙게 될 〈恥辱/Schande〉(H. 150 및 163)으로 밖에 비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부르조아 階級의 規準/Klassenschema der jüdischen Bourgeoisie〉(W. 120)에서 말하면, Julie Wohryzek의 아버지의 천한 職業이 Hermann의 階級觀을 刺戟한 것이다. 둘째로, 전번의 破婚이 病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쳐 그 病이 낫기도 전에 새롭히 다른 여자와 結婚하겠다는 子息의 我執에 대한 憤怒이며, 셋째로, 그를 激怒하게 한 것은 매번 자신을 짓밟아 온 子息 멋대로의 망나니 짓을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Ottlo를 두둔한 일²⁰⁾이며, Felice와의 約婚과 그 破婚, 이번에는 또 일변하여 성급하게 結婚을 決

20) 描稿：韓國海洋大學 論文集 第17輯 〈人文社會科學編〉1982, S. 97~98 參照。

定하는 등, 일일이 獨善的인, 그나마도 파렴치한 行動이 아버지 Hermann의 쌓이고 쌓인 오랜 憤怒를 폭발하게 한 것이다. 直線的이며 성급한 아버지로선 자신의 感情을 있는 그대로 나타낸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子息을 窮地에서 救出해 내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事實인 것이다. 이리하여 結婚計劃은 中斷狀態에 있었으나 완전히 破婚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첫번째의 경우처럼 公式的인 것이 아니었으며 어디까지나 當事者間의 約束에 불과했지만, 이러한狀況은 다음 해인 1920년 여름무렵까지 持續되었다.

그러나 그는 1920年 4月 初旬頃까지 Prag에 머물렀으나, 곧 3個月의 휴가를 떠나 Prag를 떠났으며, Julie의 兩親 앞으로 쓴 便紙에서의 約束처럼 München에 들리지도 않고 Alps 남단의 Meran의 Sanatorium으로 갔다. 그리하여 거기서 착착 便紙를 썼으나 상대는 Julie가 아니고 새로운 여자친구 Milena였던 것이다. Julie는 다시금 생이별의 아픔을 맛보게 된다, 바로 Felice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나 Felice의 경우는 Grete와의 文通이 오래지 않아 杜絕되고 그가 그녀에게로 다시 돌아 왔으나, Julie는 2,3個月 戲弄當하던 끝에 결국 버림을 받는 것이다.

子息이 確信하고 있는 최대의 結婚障礙/Ehehindernis란 결국 아버지를 罷倒하고 非難하기 위한 口實에 불과하다.

「가족을 부양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제가 당신에게서 알게 된 모든 자질이 옳든 그려든 필여 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모두가 다함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유기적으로 당신 속에 일체화하여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요컨데 강기/Stärke와 타인에 대한 조소, 건강과 일종의 무절제, 변설의 재능과 부족감, 타인에 대한 불만감, 세상을 우월하는 태도/Weltüberlegenheit와 비도/Tyrannei, 세태 인정의 지식/Menschenkenntnis과 많은 사람들에의 불신, 그 밖에 각별하게 단점도 없는 장점, 예컨데 근면이라든지, 인내력, 침착, 대담성 등, 이를 모두와 비교하면 제게 있는 것이라곤 거의 전무하며, 있다손 치더라도 불과 얼마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대체 어떻게해서 결혼하리라 생각하겠습니까. 당신마저도 결혼생활로 악전고투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자식들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데 말입니다.」(H. 160)

結婚無能力者가 된 責任은 모두가 아버지에게 있다고 一方的으로 決定해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主張을 確固히 하기 위하여 일단 被告인 아버지에게도 辯明의 機會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現實의 아버지를 出廷시키는 것은 아니고, 原告인 동시에 辯護人인 自身이 나름대로 아버지의 代理人이 되어 陳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底意가 있는 一方的 決定의 하나이지만, 그런대로 假借없는 舌鋒으로 자신의 狹猾함을 別挾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顯微鏡的인 눈> 때문에 일 것이다. 때문에 이 <아버지>는 現實의 아버지 보다 더 痛烈하게 急所를 찌르고 있다.

<아버지>는 反擊한다. 너가 궤변을 써서 證明하려는 것은 <첫째로, 너에겐 罪가 없다는 점, 둘째로, 내게 罪가 있다는 점, 셋째로, 너는 오직 관용으로 날 용서하려는 심산일 뿐만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인 것을 진실을 거역하면서까지 내게도 罪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스스로 믿으려고까지 하고 있지만>(H. 161), 이것은 결국 너가 <철저하게 나를 먹이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을 품은>(H. 161) 때문이다. 그 實例가 이번의 일이다. <너가 먼저번에 결혼하려 했을 때, 너도 이 편지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결혼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너는 스

스로 고생하지 않기 위하여 내게 결혼 불성립의 손을 빌리려 했던 것이다. 결국 이 결연이 내 이름에 뒤집어 씨워질 치욕/Schande 때문에 내가 이 결혼을 반대하게끔 너는 바랐던 것이다.(중략) 이 결혼에 대한 나의 혐오가 결혼의 방해가 되지 못했을 뿐더러, 반대로 너에게 있어선 그 처녀와 결혼하려는 자극제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는 너가 분명히 말했듯이 그 도주계획/Fluchtversuch이 그것에 의하여 완성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결혼을 허락했다고 해서 너의 비난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너의 결혼 불성립의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너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만약 내가 평장한 착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너는 이 현지에서까지도 내게 寄生하고 있는 것이다.>(H. 161~163)

5. 結語

陰濕한 自虐과 苦惱에 충만한 自責의 꾸밈없는, 그리고 透明하고 輕快한 文體는 마치 그가 자신을 紛明하는 喜悅을 느끼고 있는 듯한 印象마저 주고 있다. 이미 이것은 단순한 自己批判이나 自己客觀化라는 그러한 것은 아닌 것이며, 아울러 그는 자신의 立場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의 父的 要素만을 抽出하여 再構成한 <아버지>의 人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子息으로서의 음흉한 險謀를 白日下에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불가사의 한 才能이며, 또한 情熱인 것이다. 게다가 더욱 불가사의하게 생각되는 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의 발목을 일어서지 못할만큼 차게 해놓고, 그나마도 최종적인 공격을 가하기 위한 準備로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깊은 執念인 것이다.

「이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난전체는, 이것이 얼마간은 당신에게도 향한 것이었읍니다만, 당신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제께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당신의 불신도 당신의 교육의 결과 생겨난 저의 자기 불신만큼은 커지지 못한 겁니다. / Darauf antworte ich, daß zunächst dieser ganze Einwurf, der sich zum Teil auch gegen Dich kehren läßt, nicht von Dir stammt, sondern eben von mir. So groß ist ja nicht einmal Dein Mißtrauen gegen andere wie mein Selbstmißtrauen, zu dem Du mich erzogen hast.」 (H. 162)

自身을 들보지 않고 相對의 攻擊自體를 無氣力化해 버리는 이 手法은 그 方法이 극도로 尖銳化된 것이며, 보통 手段으로는 처음부터 敗北가 自明한 強大한 相對를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물고 늘어지는 戰法이다. 자신을 회생시키지 않고서는 相對를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다는, 다시 말해서 참다운 自由를 획득할 수 없다는 궁극적인 認識은, 예컨대 다음 해인 1920年 1月에서 2月 사이에 걸쳐 쓰여진 Aphorism 중의 遺稿에 남아있는 한 句節에서 形象化되어 있다 하겠다.

「그는 Archimedes의 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도록 이용하고 말았다. 분명 이 조건하에서만 이 점을 발견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거다. / Er hat archimedischen Punkt gefunden, hat ihn aber gegen sich ausgenützt, offenbar hat er ihn nur unter dieser Bedingung finden dürfen」 (H. 303)

이 認識은 말하자면 「아버지에의 便紙」의 報酬였던 것이다. 확실히 現實의 父子關係에 있어서 그가 이 便紙를 쓴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敗北를 完成했던 것이다. 이유인즉 子息이 아버지를 이기기 위하여 便紙 같은 따위가 필요할 리 만무하며, 오로지 스스로 아버지가 됨으로써 아버지의 자리를 뺏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자기 人生의 全領域을 自己意識의 瑞光으로 채우려 하는 作家로서의 그는 이 便紙를 쓴으로써 자신의 運命을 支配하고 있는 手段의 최소한의 실마리를 捕捉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Hermann은 요컨대 그 때문에 이용되었을 뿐이며, 그 <먹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子息은 現實의 아버지의 彼岸에서 地上의 모든 아버지를, 자신의 힘에 의하지 않고 대신 움직이고 있는 궁극적인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自身이 滅亡되는 것은 명백한 歸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挑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것은 自滅을 뜻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自滅을 뜻하는 것이다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림없는 싸움을 걸고 있다. 그렇게 합으로써만이 自身의 人生이 自己의 것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쉽지 않았다. 運命을 支配하고 있는 것이 마치 邪惡한 意志인 것처럼 마음씨 나쁜 誘惑으로 迷惑했기 때문이다. Milena와의 遭遇는 Kafka에 있어서의 이러한 일종의 誘惑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정녕 갈피를 잡지 못하고 파로워 한다. 그러나 이 苦鬪를 試鍊 삼아 그는 自身이 對決하고 있는 것에 대한 正體를 보다 깊이 認識하는 것이다.

略字表

H. =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m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T. = Tagebücher 1910~1923.

Br. = Briefe 1902~1924.

Br. an F. = Briefe an Felice.

M. = Briefe an Milena.

P. = Der Prozeß.

Brod. =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Wagenbach. = Kafka, Rowohlt's Monographien, Hg. von K. Kusenberg 1978.

Bibliographie

Franz Kafka Gesammelte Werke, Hg. von Max Brod, Taschenbuchausgaben in 7 Bände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Bd. 6: Hochzeitsvorbereitungen auf den Lande und andere Prosa aus dem Nachlaß.

Bd. 7: Tagebücher 1910~1923.

Franz Kafka: Briefe 1902~1924, Hg. von Max Brod,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5.

Ders.: Briefe an Felice und andere Korrespondenz aus der Verlobungszeit, Hg. von Erich Heller und Jürgen Bor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6.

Ders: Briefe an Milena, Hg. von Willy Haas,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Ders: Der Prozeß,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Max Brod: Über Franz Kafka,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H. Binder: Kafka Kommentar zu den Rezensionen, Aphorismen und zum Brief an den Vater, Winkler Verlag, München 1977.

K. Wagenbach: Kafka, Rowohlt's Mongraphien, Hg. von K. Kusenberg 1978.

H. Politzer: Franz Kafka. Der Künstler, Suhrkamp Taschenbuch Verlag, Baden-Baden 1978.

Peter U. Beicken: Franz Kafka, Eine kritische Einführung, Athenäum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74.

拙稿：韓國海洋大學 論文集 第17輯(人文社會科學編)，1982。

